



진정한 거듭남이란

박진탁/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장

때 때로 인간은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산다. 그것은 아마도 일을 시작하게 된 이유나 목적보다는 일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가끔 욕심을 훌쩍 넘어버린 지금의 나의 모습을 보며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생각에 젖을 때가 있다. 가끔의 이런 생각들이 30여년이 넘는 '생명나눔운동'의 열정들을 확인하는 믿음의 계기가 되는 자극이 되기 때문이다.

현대인들이 일상에 매몰되어 아무런 감동없이 무덤덤하게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소중한 순간순간을 생각하며 그 순간을 사랑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며 행복임을 이야기 하고 싶다.

삼십여년 전 신학대학을 막 졸업하고 귀한 열정과 사명감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병원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 사역을 시작하고 얼마 후 응급차를 타고 실려오는 환자가 혈액형이 맞는 피가 없어 수술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다행히 나와 혈액형이 맞아 그 환자는 수술을 할 수가 있었고 며칠 후 건강히 퇴원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 때의 감격은 지금도 생생하다. 그 일에 대한 경험, 바로 그 부르심의 소망이란 것을 깨닫게 되었고 내가 진정 해야 할 일은 몸속의 피가 모

자라는 사람에게서는 피를, 이식을 받아야 하는 환자에게는 장기를 이식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임을 알았다.

병마로부터 환난 당하는 자들의 어려움을 같이하고 해결해 주어야 하는 위로자의 길은 생각보다도 더 힘든 길이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 때마다 어린 시절 자연 속에서 양을 지키면서 자라던 순수한 소년이 세상의 능력을 인정 받았을 때 이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세력에 의해 유량의 고난을 겪으면서도 이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했던 다윗처럼, 30여년이 넘는 세월을 생명 나눔의 소중함을 알기에 고통과 좌절들을 이길 수 있었다.

난 이러한 순간 순간들을 사랑한다.

지금 생각하면 이러한 순간 순간들이 있었기에 나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었고 이럴 때마다 더욱 각별한 열정들이 생긴 것 같다. 진정한 사랑은 고통과 좌절 속에서도 얼마나 견고하게 버티고 이겨나갈 수 있는지를 경험하게 될 때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 같다. 이 세상을 도피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믿음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 주는 의미일 것이다.

이제 그때 그 시절은 내게 그리움이고 설레임이다. 일상의 삶이 지치고 허무하게 느껴질 때, 처음 무언가를 시작했을 때의 초심을 돌이켜 본다면 그것은 아마 자신에게 희망과 인내를 가르쳐 줄 것이라 믿는다. PPFK

